

요한복음 세족식의 유대 정결법적 의미:

요한복음 13장 세족 담화 속 정결례적 요소 분석

김주헌*

1. 서론

요한복음의 세족식은 고별담화의 시작 단락으로서, ‘서로 사랑의 윤리’의 대 원칙을 천명하여 17장에서 정점에 이르는 요한복음의 고별담화의 메시지를 더 풍성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까지도 신약학에서 이 단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본문 안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편집적 난점들 때문에 이 단락의 명확한 해석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1) 선택된 자와 배신자에 대한 극명한 대비; 2) 이에 따른 분절된 듯한 단락 내 분화된 구조 (특히 요 13장 1-20절과 21-38절을 나누어 보는 구조; 3) 구조를 따라서 분절되어 나타나는 듯한 주제 및 관련 표현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신약학자들은 요 13장의 세족식에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해왔다.¹⁾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종교-문화적 배경을 통해 요한 공동체의 특수한 의식으로 세족식을 해석하는 견해가 두각을 나타내는 듯하다. 게다가 요한 공동체 가설이 아직도 요한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아직 많은 연구가 공동체 내

*신약학 강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1) 세고비아(F. F. Segovia)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세족식의 두 단계 구성이 요 21장의 제자들의 파송을 위한 선교적 차원의 답을 염두에 둔 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계의 편집층으로 구성됐다는 제안을 했다. F. F. Segovia, “John 13,1-21, The Footwashing in the Johannine Tradition,” *ZNW* 73 (1982), 31-51를 보라.

갈등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이거나 공동체에 새로운 윤리관을 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적 전제로 세족식 본문을 살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요한 공동체 가설을 근거로 한, 편집 비평 혹 서사 비평으로 세족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도가 주된 해석의 흐름이 되었다. 이에 근거해, 향후 등장한 많은 해석들은 세족식에 대한 지나친 상징화, 신학적 읽기를 투영해 13장의 세족식을 해석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복음서 연구에서는 예수의 유대인 됨(Jewishness of Jesus), 혹은 유대교 안의 예수(Jesus within Judaism) 논의의 부상을 통해, 1세기 유대교인이었던 예수의 정체성에 접근하는 시도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학계의 새 흐름이 기존의 요한복음 13장 세족 본문 연구들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한 유대교의 정결법적 측면을 세족식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착안할 수 있었다. 티센(M. Thiessen)은 이 진영을 대표하는 최신 논의를 개진한 학자로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를 통해 공관복음의 예수는 유대교 정결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그 적용을 확대하는 완성적 차원에서 정결법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티센의 논의를 요한복음까지 연장해 적용한 시도는 많지 않았다. 첫째로,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에서 공관복음과 달리 정결법과 관련한 유대인과의 논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요한복음 속 고도의 신학화 된 진술들은 율법 준수 논쟁보다는 예수의 자기 계시적 기독교론적 담화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잘 시도되지 않았던 유대 정결법의 관점을 적용한 세족식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증거들을 면밀히 살핌으로 기존의 해석들이 미진하게 다루었던 세족식에서 정결법적 차원이 존재함과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세족 본문에 대한 기존 연구사 개관

세족식 연구 분야에서 기존 연구들과 1세기 근거 자료들을 잘 종합한 저작은 토마스 (J. C. Thomas)의 박사 논문이다. 토마스는 리히터(G. Richter)와 로제(W. Lohse)의 본문 해석을 다룬 주요 저작 분류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7개의 세족 본문 해석의 유형군들을 제시했다.²⁾

- (1) 겸손의 본보기인 세족 (2) 성만찬의 상징인 세족 (3) 세례의 상징인 세족
- (4) 죄의 용서/혹은 죄의 정결을 의미하는 세족 (5) 세례와 성만찬과는 별도의 성례전인 세족 (6) 구원론적인 표지인 세족 (7) 논쟁적 의식인 세족

위의 7가지 분류는 다음의 두 가지 큰 주제, 곧 1) 상징적 의미로서의 세족식과((1)-(4), (6)); 2) 성례전 (세례, 성찬)과 연결 또는 독립된 별개의 성례전으로 실재하는 세족식((5), (7))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상징적 해석은 키너(C. Keener)가 주장하듯이, 십자가를 배경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예수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본으로 보는 것이다.³⁾ 이 입장은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 유다의 배신을 경험한 예수가 자기의 자전적 상황을 자신의 목숨을 남에게 내어주는 새 모범으로 제시했음을 고려한다. 따라서, 예수가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해석한다 (요 13:34; cf. 레 19:18).⁴⁾ 물론 이 해석에서는 세족식에서의 씻음과 포도나무 강화의 심상이 상징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e. g. 겔가지의 정돈됨과 몸과 발의 씻겨짐(요 13:10과 요 15:2); 그리스도

2) J. C. Thomas, "Foot washing in John 13 and Johannine commun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0), 1-9. cf. G. Richter, *Die Fusswaschung im Johannesevangelium*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67); W. Lohse, "Die Fusswaschung (Joh 13: 1-20): Eine Geschichte ihrer Deutung" (Dr. theol. Dissertation;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zu Erlangen-Nürnberg, 1967).

3) C. S. Keener, *The Spirit in the Gospels and Acts: Divine Purity and Power* (Peabody: Hendrickson, 1997), 161-62.

4) Keener, *The Spirit in the Gospels and Acts*, 162.

안에서 사랑의 거함으로 공동체 안의 연합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실을 더 풍성케 함(요 13:35과 요 15:5-14)). 이 상징적 해석은 예수가 발을 씻어 주는 행위를 그의 십자가에서 보일 죽음의 전조로 이해하고, 예수가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함의 모범을 보였으며, 제자들에게 당부한 서로 사랑을 자신의 행동으로 미리 구현했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나이리(J. Neyrey)는 요한복음 13:6-11과 21:15-19를 비교하여, 세족 단락의 기능은 예수의 죽음으로 베드로가 온전한 제의를 거쳐 깨끗케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시도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이런 상징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⁵⁾ 국내 학자로는 우선 송승인도 13장의 세족식에서 물의 용례를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⁶⁾ 이승문도 사회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공동체 내의 사회적 상황을 상정한 세족식의 상징적 읽기를 제안했다. 곧, 세족식을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공동체 내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행동을 요한 공동체가 멈추고 포용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을 권고하는 의식으로 읽는 것이다.⁷⁾ 김문현 역시 이런 상징적 해석을 지지한다. 그는 세족식이 예수가 경험할 배신과 굴욕에 대한 상징적 행위로서, 이 단락은 제자들이 예수를 모범으로 따라 자기들 앞의 고난을 이겨내야 함을 권고한다고 보았다.⁸⁾

그러나 이런 상징적 해석 입장의 한계 역시 명확하다. 상징적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 상징적 해석의 근본적 취약점인 신학적 읽기에 정도된 해석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으나,⁹⁾ 여전히 신학적

5) J. H. Neyrey, "The Foot Washing in John 13:6-11; Transformation Ritual or Ceremony?" *The Social World of the First Christians: Essays in Honor of Wayne A. Meeks*, L. M. White and O. L. Yarbrough, eds., (Fortress, 1995), 198-213.

6) 송승인, *Water as an Image of the Spirit in the Johannine Literature*. SBL 171 (New York: Peter Lang, 2019), 70.

7) 이승문, "요한복음서의 세족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과 사회학적 재해석," 『신약논단』 20(4) (2013), 949, 951-52.

8) 김문현, "요한복음 13:1-38 내러티브 읽기: 베드로의 인물성격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1(2) (2014), 467-68.

9) 김문현은 서사비평학, 이승문은 사회학적 읽기를 도입한 사례이다.

상징화로 본문 해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곧, 다양한 학자들의 약간씩 다른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음을 통해 예표적인 모범을 제시했음이 상징적 해석의 지배적 해석 전제로 작용한 것이다.¹⁰⁾ 따라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강화된 고도의 신학적 진술을 차용 했음을 감안해도, 세족식에서 충분히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측면들이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상의 요한 공동체를 상정해 공동체를 위한 상징적 해석을 시도하는 점에서도 이 해석은 약점을 지닌다.¹¹⁾ 만약 공동체의 윤리의 상징 대상인 요한 공동체가 가상적 재구성에 근거한다면, 윤리 원칙의 적용대상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족식의 윤리를 적용범위와 그 대상을 다시 논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례전적 해석은 세족식이 성례라는 실재임을 강조한다. 세족식이 세례, 성찬과 연결되었든지, 혹은 독립 되었더라도 성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며, 대표적 학자는 쿨만(O. Cullmann)을 들 수 있다. 쿨만은 세족식이 성만찬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세례와 성만찬의 두 가지 성례전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곧, 쿨만은 세족식의 세례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세족식이 성만찬으로 귀결되는 의식으로 보았으며, 세족과 성만찬은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그리스도와와의 친교 행위라고 정의했다.¹²⁾ 그런데 쿨만의 사례를 포함하여,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의 사이에 세족식을 위치시키는 견해와 세족식을 독립된 예전으로 보는 견해는 공통적으로 세족식이 요한 공동체 내의 특수한 의식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를 반대하여 세족식은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내에서 자체적

10) 이런 대표적인 이해는 Segovia, "The Footwashing in the Johannine Tradition," 49를 보라. 상징적 해석을 통한 윤리적 감화를 주장하는 최근 연구는 B. Mathew, *The Johannine Footwashing as the Sign of Perfect Love: An Exegetical Study of John 13:1-20* (Tübingen: Mohr Siebeck, 2018)를 보라.

11) 최근 국내 학계에서 요한공동체 가설에 대한 재고를 다룬 연구사는 김주헌, "공관전승과 요한전승의 연결 가능성 재고: 요한 특수 공동체 가설에 대한 재검증에 근거해," 『신약연구』 21(3) (2022), 352-384를 참고하라.

12) O. Cullman, 『원시기독교 예배』, 이선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144-146.

필요성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의식 으로 봐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¹³⁾, 그 근거를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¹⁴⁾

이런 성례전적 해석의 가장 큰 약점은 요한복음 텍스트 내에서 일관된 성례전과 세족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족식을 기존 성례전과 일치시키든, 독립적 예전으로 위치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세족식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 많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성례전적 해석 역시 요한 공동체의 존재를 필수적 전제로 상정했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과 동일한 약점을 공유한다. 곧, 세족식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가상의 요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족식의 성례전화를 추정하는 것은 순전히 추론의 영역으로 남을 뿐이다. 이 요한 공동체의 가설적 구성에 기초할 때 발생하는 공백이 있는 논증, 이에 더해 가상의 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을 희박한 세족식의 개연성은 후대 교회사에서 세족식이 독립된 예전으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을 더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학계에서 나타난 연구들의 경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상징과 신학적 해석에 비중을 둔 입장, 혹 종교적 예전으로 세족 행위를 보는 해석 양측 다 당시의 역사적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두 진영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했지만, 두 주류 진영의 해석이 형성한 학문적 지형은 본문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 재구성에 비중을 두기보다 세족 본문의 편집, 세족식 속 신학과 상징 또는 예전적 요소 분석 등에 더 치중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족식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보다 세족 본문 내적 의미 분석에만 편중된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요한복음 자체가 역사적 요소를 유추하는

13) D. Tripp, "Meaning of the Foot-Washing: John 13 and Oxyrhynchus Papyrus 840," *ET* 103(8) (1992), 238-239; L. Abramowski, "Die Geschichte von der Fußwaschung (Joh 13)," *ZTK* 102(2) (2005), 189-192, 200.

14) 국내 연구는 황훈식, "예수의 세족에 대한 신학적, 예식적 발달역사 - 밀라노 암브로시우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9 (2020), 91-117를 보라.

것이 어려운, 상당히 높은 차원의 신학적 진술을 담은 문서라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세기 말(혹 2세기초) 요한복음의 저작 당시와 인접한 당대 유대교적 맥락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곧 기존 연구의 한계는 세족식이라는 예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유대적 맥락 속 정결법 차원의 영역까지 탐구할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유대적인 정결법적 시각에서 세족식의 '예전전 성격(ritual characteristics)'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제시된다면, 기존의 가정에서 도출된 결론들과는 달리 역사적 개연성이 있는 요소를 통해 세족식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두 진영이 그나마 역사적 정황 복원에 함께 비중을 둔 전제인 요한 공동체의 상정이 양측이 제시한 주장의 역사적 개연성을 약화 시킨다. 가상적 재구성인 요한 공동체의 존재가 흔들린다면, 필연적으로 이에 기반하여 세족식이 이 공동체에 행해졌다는 전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곧, 상징성 혹은 성례전과 연결성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둔 연구더라도, 세족식을 해석하는 기본 전제에서 가상의 요한 공동체의 존재를 가정하여 진행된 연구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되도록 학계에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는 기존의 정설이었던 요한 공동체의 가설적 재구성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는 신약학계의 변화된 연구 경향성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근 학계에서 반론을 제기 받는 요한 공동체의 실재 가능성을 고집한 연구는 그만큼 더 많은 역사적 개연성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¹⁵⁾ 따라서 세족식을 요한 공동체 내에서 행해진 예전으로 전제하고 도출했던, 지금까지 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결론 역시도 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학계에서 조망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찰하고자, 1세기 유대교 정결법의 관점을 도입해 세족식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5) 김주헌은 관계적 공동체 모델과 경쟁적 문서화, 구전과 기억을 통한 전승의 전달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경우 두 전승의 연결 가능성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김주헌, “공관전승과 요한전승의 연결 가능성 재고: 요한 특수 공동체 가설에 대한 재검증에 근거해,” 366-77. 이는 요한전승과 공관전승의 단절이라는 기존의 복음서 학계의 가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후반부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정결 관념 공유라는 명제에 힘을 실는 예시이다.

지금까지 주류적인 가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 접근하고자 하며, 이에 근거한 새로운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다음 소단락에서는 세족식과 1세기의 역사적 정황의 점점인 1세기 그리스-로마, 유대교의 문헌 증거들에 나타난 세족식의 양상을 살필 것이다.

3. 고대 1세기 유대교와 그리스-로마 문헌의 증거에 나타난 세족식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정결법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공관복음이 손을 씻는 정결법, 부정한 대상을 만지는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 (혈루증 여인 담화, 시체를 만지는 이야기, 문둥병으로 알려진 '레프라'를 접촉하는 이야기 등)을 다루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런 주제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 역시 공관복음만큼 강조되지 않은 듯 하며, 나사로의 소생이 등장하나 이는 일차적으로 시체를 직접 만지는 묘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결법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예시가 된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 요한복음을 일차적으로 정결법과 연결해서 살펴보려는 시도가 그간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돌과구는 토마스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삼을 때 찾을 수 있다고 본 논자는 제안한다. 비록 토마스의 연구는 요한 공동체의 존재를 큰 전제로 삼아 자신이 발견한 세족식의 특징을 요한 공동체 가설에 맞춰 적용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그의 기여는 고대 유대교 종교 제의의 정결례 맥락과 그레코-로만 문화의 문화 관습이라는 두 개의 거시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치밀하게 세족식과 관련한 요소들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토마스가 분류한 세족의 종류는 제의적 성격의 세족뿐 아니라 위생을 위한, 환대를 표현하기 위한, (종의) 섬김을 보여주기 위한 세족이 있으며, 그는 이런 당대 문화에서 이런 세족에서 모든 성격이 요 13장의 세족식에 종합되어 나타난다고 결론짓는다.¹⁶⁾ 그러나 논자는 본 소단락에서 토마스의 분류에서 제의적

맥락에 속하는 증거들에 집중해, 세족식의 종교-제의적 차원을 더 조명하려 한다. 나아가 이 소단락은 1세기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우선 당대 유대교와 밀접한 문화적 연결성이 있는 그레코-로만 문화의 정결식을 먼저 분석하고, 여기서 발견된 정결 관념이 어떻게 유대교의 정결 제의에 드러났는지 살피려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증거들 위에 최근의 유대교 안의 예수를 주창한 학자들이 제기한 '유대교 정결법'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유대교 안의 예수)가 유대적 정결 제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족식을 행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세족식이 철저히 요한 공동체에게만 국한된 상징적 혹은 성례전적 제의가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례의 연장선 안에서 예수만의 새로운 윤리가 천명되는 의식임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3.1. 그레코-로만 문화 맥락에서 본 정결법

그레코-로만 배경에서의 세족의식은 종교적 제의, 환대, 종의 섬김의 표지 등의 의미군으로 나눌 수 있다. 오딧세이 XXII 454-480, 일리아드 XVI 235, 스트라보의 지리학 VII 238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인들 중 다수의 개인들은 거룩하다 여겨지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 발을 씻었다는 것이다.¹⁷⁾ 또한, 로마의 파비우스 픽토라는 역사학자는 *Delure sacerdotis* 16에서 로마의 사제들이 제의적인 세족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묘사한다.¹⁸⁾ 플리니 역시 자연사 XXIV 102에서 막 씻은 맨발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셀라고 식물들을 한 자리로 모았다는 묘사를 보여준다.¹⁹⁾ 결국 그레코-로만

16) Thomas, "Footwashing", 65-66.

17) Thomas, "Footwashing", 46.

18) H. Peter, *Historicum Romanorum Reliquiae I* (Sutttgart: Verlag B. G. Teubner, 1967), 116. Thomas, "Footwashing," 49, fn. 49에서 재인용.

19) W. H. S. Johnes, *Pliny: Natural History V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75. Thomas, "Footwashing," 49, fn. 50에서 재인용.

시기의 문헌 증거들은 더글라스(M. Douglas)의 유명한 *Purity and Danger*에 서의 유명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이다. 더글라스는 어떤 것을 더럽다고 규정하는 기준은 기존에 확립된 분류와 질서, 권위 체계를 전제한다고 했으며, 더러움의 발생은 이런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더러움을 우주적이건 사회적 이건 구조의 선들이 명백하게 정의되는 곳 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위험이라고 정의했다.²⁰⁾ 다시 말해, 그리스-로마 문헌 증거들은 그리스-로마기에 형성된 1세기 지중해 사회의 문화적 질서, 제의적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당대인들의 정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더러움 때문에 당대 그리스-로마인들의 삶에 자리잡은 질서에 불안요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의적 차원의 한 부류로 세족식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²¹⁾

이에 더해, 그레코-로마사회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인식은 자연, 윤리적 부정뿐 아니라 공간의 구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리스와 로마의 정결의 장소는 그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일상에 자리잡은 다수의 성소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침범은 범법자가 생기는 위험과 잠재적인 복수의 유발을 야기하는 것이었다.²²⁾

결론적으로 그리스-로마의 정결 관념은 기저에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부여함으로 사회적 질서, 혹은 권위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 문헌 안에 나타난 세족식 역시 이런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렇게 거룩한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정결함을 부여한다는 관념은

20) M.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124.

21) Oedipus at Colonus, 280-84에서 시민들에 의해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오이디푸스의 독백은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의 정결관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는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서의 체류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기에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도시의 평판에 오이디푸스로 인한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cf. Diss. 2. 8. 13). 따라서, 인간 안의 신성, 혹은 도시의 가치 등의 기존 질서로 인식 된 것을 더럽히거나 부정하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이 당대에는 하나의 제의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22) D. A. De Silva, 『문화의 키워드로 읽는 신약 성경』, 김세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360-61.

제 2성전기 유대교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동일 하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소단락에서는 제 2 성전기의 문헌 증거들이 실제로 이런 명제를 지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3.2. 유대 정결 맥락에서의 세족

토마스는 세족 의식의 기원이 되는 구약 텍스트로 출 30:17-21, 출 40:30-32을 꼽았다.²³⁾ 또한 토마스는 제 2 성전기 문헌의 제의적 세족의 예시를 보여주는 사례로 필로(Philo)를 제시한다. 필로의 *Quaestiones in Exodum* I. 2 에서는 씻지 않은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 전승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임을 말한다. 또한 *De Vita Mosis* II. 38에서는 필로는 세족식을 도덕적 윤리적 실재와 연결해 설명한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흠이 없는 삶의 상징이며 (미덕의 땅에서) 수년간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다...²⁴⁾

토마스는 또 미쉬나 *Berakoth* 9:5를 문헌적 예시로 들어 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한다.²⁵⁾

그렇다면 당시의 제의적 세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유대교적인 정결관념은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가? 아마 제의적 의식은 예수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유대인의 생화에서 널리 퍼진 관습 중 하나였을 것이다. 손을 씻기 위한 정결레 탕인 미크바웃(*Mikva'ot*)의 고고학적 발견은 이런 추론에 힘을 실는 예시이다.²⁶⁾ 그리고 많은 랍비 문헌들은 제의적 정결에

23) Thomas, "Footwashing," 26-27.

24) Thomas, "Footwashing," 29-30. 이 부분은 필자의 사역이다.

25) Thomas, "Footwashing," 31.

26) 정결 그릇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 사례는 임미영, "신약 시대 구약의 정결법 실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서, 당대인들의 생활에서 제의적인 요소가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제의적 부정결에 대한 인식은 쿠파 공동체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명확한 예시들²⁸⁾은 1QS 2:25-3:6 (불의한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기 거부할 때의 경고); 1QS 3:34 (불의한 사람이 제의적 정결로 자동적으로 깨끗해짐이 불가능); 1QS 5:13-14 (회개 없는 정결의 무가치함)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카젠(T. Kazen)은 이런 1세기 유대교의 정결 관념에 구약적 정결제과의 의식을 통한 정결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할라카 전통(Halakhic Tradition)이 예수의 사역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카젠이 핵심적으로 제시한 제의 관련 텍스트는 레위기 11장, 12-15장(민수기 19장), 레위기 18-20장 등이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쿠파 공동체가 이 텍스트들 속 정결례 의식을 계승하여 부정결에 대한 규칙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고, 이후 미쉬나에 속에 나타난 랍비적 유대교는 이 관념들을 보다 더 정교화 시켰다고 주장했다.²⁹⁾ 카젠은 또한 4단계의 부정의 단계에 대한 도식을 설명한다. 카젠은 이 단계들은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부정의 단계로 정의했으며, 이런 부정들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을 특정한 장소에 두는 것으로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이 발전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부정에 대한 관념이 예수의 행동에서 드러난 그의 부정에 관한 태도의 중요한 요인이라 설명한다.³⁰⁾ 그리고 카젠은 공관복음의 하나님 나라 개념의 발전과 유사하게, 예수의 추종자들과 예수와의 친교의 중요성이 점차 확장될수록 귀신과 부정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축소화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에 의한) 유대 정결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관한 고고학적 고찰,” 『Canon&Culture』 13(2) (2019), 257-262를 보라.

27) 요한복음 11:55에서도 물에 담감을 통해 축제 전 예식적 정결을 유지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28) 이 예시들은 C. Wassen, “Jesus’ Table Fellowship with ‘Toll Collectors and Sinners’: Questioning the Alleged Purity Implications,” *JSHJ* 14(2) (2016), 153에서 차용했다.

29) T. Kazen, *Jesus and Purity Halakhah: Was Jesus Indifferent to Impurity?* (Stockholm: Almquist & Wiksell, 2002), 4.

30) Kazen, *Jesus and Purity Halakhah*, 7.

중요도는 약화 됐으나 새롭게 적용된 정결관념을 탄생시켰다고 제안한다.³¹⁾

아베마리(F. Avemarie)도 카젠과 유사한 논의를 이어가며 예수와 제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된 정결 관념의 등장을 설명한다. 마가복음 7장의 부정한 떡을 먹는 예화를 통해, 예수의 제자들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이 허용됐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원래 상태의 손상되지 않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아베마리는 제안한다.³²⁾ 곧, 당대의 정결의 관념은 예수와 제자들에게 거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용된 바리새 전통의 예시로서 긍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아베마리는 공관복음의 자료들(특히 막 7장)이 오히려 바리새 전통을 따르는 고대 유대교의 정결법 논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정결관이 바리새 전통이 가진 특징을 나타내며, 바리새 전통과의 연속성이 있음을 말한다.³⁴⁾

따라서, 이런 유대인의 정결 관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인 성막, 성전이 부정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확인해주며, 부정함에 대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벌로 대가를 치러야만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율법서의 정결례 지침에 명확히 등장한다(cf. 레 11, 민 19). 이런 거룩한 장소(또는 시간)의 구분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종교 관념에서 보편화된 것이었음을 앞선 그레코-로마 문헌의 예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고대인들은 신들이 자신의 처소에 들어옴에 있어 강한 애착을 보였기에 이에 합당한 예절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³⁵⁾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의식적 부정함은 그 자체는 도덕적 관념의 죄와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곧, 신성 한 장소를 더럽히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식적 부정 자체는 죄를 야기하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³⁶⁾

31) Kazen, *Jesus and Purity Halakhah*, 349.

32) F. Avemarie, "Jesus and Purity,"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Literature*, R. Bieringer, (ed.) (Leiden: Brill, 2010), 267.

33) Avemarie, "Jesus and Purity," 267-68.

34) Avemarie, "Jesus and Purity," 278-79.

35) M. Thiessen,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44.

36) Thiessen,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181.

그러나 이 명제를 뒤집어 생각할 경우, 신성한 장소를 침범하는 부정이 발생하는 순간 의식적 부정은 내면의 도덕적 관념의 죄와 동일 하거나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 부정과 죄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소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정화가 필요한 심각한 더러움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1세기 유대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결법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제2 성전기 유대교와 그레코-로만 배경의 문헌 증거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당대인들의 제의에 대한 의식은 특별히 거룩하다 여겨지는 장소(영역)에 들어가거나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족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정결례를 거친 깨끗한 상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화는 거룩한 장소로의 허가 받지 않은 자들의 침입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두 문화는 공통적으로 이런 정결에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정결 인식에 따른 구조와 계급을 설정하고, 공동체의 윤리적 경계선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피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체 내부의 경계를 창조한다³⁷⁾. 그리고 거룩한 장소를 통과하기 위해 씻어야 하는 오염의 대상 혹은 금기(taboo)는 문헌 증거에 따라 다양했으나, 내면의 부정으로 인식되는 도덕성(morality)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 당대 그리스-로마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정결관에 한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일치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명제는 고대인들의 정결에 대한 관념을 확인할 때 한층 명확해진다. 곧 부정과 깨끗함에 대한 이원론적 인식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은 분명하며, 이는 신성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삶의 양식으로 구체화 됐던 것이다. 곧 세족을 포함한 이런 의식들의 요구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궁극적인 정결함의 대상인 하나님(신)께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즉, 그리스

37) De Silva, 『문화의 키워드로 읽는 신약 성경』, 357.

와 로마 세계뿐 아니라 유대교 세계에서도 하나님(신성)께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정결하며 (하나님을 닮은)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존재했으며, 더러움과 불완전함은 완전한 신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기피해야 할 요소였다. 다시 말해,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정결 의식에 대한 사항은 1) 공간과; 2) (내면의) 도덕적 청결이다. 그리고 내면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공간안에 들어가기 위한 제의가 행해지는 '시간' 역시 넓은 범위 안에서는 정결법적 개념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 같은 유대교와 그레코-로만 배경의 이 정결 관념의 요소들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해석들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살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다.

요한복음은 정결 관념들, 특별히 유대교 정결 의식 속 개념을 한층 심화시켜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요한의 신학에 따라 정결을 통해 깨끗하게 해야 하는 구체적 영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장소, 시간, 내면의 청결(죄로부터 도덕적 정화)들인데, 이 영역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게다가 요한복음에 제시된 이 정결이 필요한 영역들은 우선 기독론을 거쳐 독자들에게 제공된다는 데서 주의를 요한다. 곧 정결해야 하는 장소는 성전 된 예수의 몸(요 2:21)이나, 역설적으로 이 장소 된 예수 자신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예수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은 제자들에게 깨끗함을 요청하는 시간이나 그 기저에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함이 전제된다. 또한 내면의 청결을 위해서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배반하는 불결을 씻는 것이 구별된다. 곧, 요한은 상징과 기독론 중심의 신학화를 통한 정결 개념을 세족식에서 제공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족식 기저에 있는 요소들은 유대 정결례에 기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38) 요한복음에서도 시간적 정결개념과 절기를 연결이 가능한 예시들이 몇몇 등장한다 (e.g. 요 7:37-38, 초막절의 물을 걷는 의식; cf. 레 15:13).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결, 오염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J. J. Lennon, *Pollution and Religion in Ancient Ro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A. Petrovic and I. Petrovic, *Inner Purity and Pollution in Greek Religion: Volume I: Early Greek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를 보라.

논의는 13장을 새롭게 조망하는 다음 단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요한복음의 세족식의 유대 정결법 차원의 해석

본격적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분석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짚고자 한다.

첫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정결논쟁, 혹 정결법을 다룬 일화들이 전면적으로 다뤄지는 것과 달리 정결법에 대한 서술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진술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고도로 신학화 된 요한복음의 진술 이면에도 유대교의 정결관념이 암시적으로 반영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1세기 유대교인의 정황에 맞춰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요한의 생각은 분명 내러티브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e.g. 유월절 절기에 대한 세 번의 반복, 요 10:19-29의 수전절 등). 곧,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속 요한복음 저자가 지향하는 정결에 대한 개념은 상징화를 거쳐 암시적인 의미층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학화의 중심축은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인 기독교론임이 거의 분명하다. 따라서 세족식에서도 이런 기독교론의 렌즈를 고려하여 그 이면에 있는 유대 정결법적 세족식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가정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정결례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묘사가 다소 신학화 된 언어로 묘사됨을 감안해야 하나, 이 요소들이 정결례 안에서 예전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 역시 부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만약 공관복음의 정결관에 대해 요한이 알았다면, 요한복음은 이를 세족식 기사에서도 신학화를 반영해 드러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요한복음의 정결관에 적용하기 위해 논자가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마가복음 7장의 정결법 논쟁 단락이다 (막 7:1-23). 이를 위해 논자는 논리학적 명제 증명을 활용하려 한다. 이는 한 논리적 명제(proposition, $P \Rightarrow Q$: 조건을 가지며, ‘~한 경우 ~이다’로 서술)가 참(true)임을 가정(증명)한다면,

그 논리적 대립쌍인 대우 명제 (contrapositive, $\neg Q \Rightarrow \neg P$: 명제 조건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형으로 서술한 명제) 역시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증명이다.³⁹⁾ 따라서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정결법에 대한 논리적 명제를 참이라고 입증하고, 이 명제를 요한이 알았다면 요한이 마가복음의 활용해 마가의 정결관의 연장선에서 자신만의 정결법적 논리를 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리적 증명을 위해 논자가 집중하는 것은 마가복음 7:20에 암시된 대우 명제이다.⁴⁰⁾ 마가복음 7:20을 논리학적 명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있다면) $\Rightarrow$ Q: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따라서, 위의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 명제인 $\sim Q \Rightarrow \sim P$, 곧 명제 조건의 위치를 바꾸어 부정형으로 재진술한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neg Q$: (그것이) 사람을 깨끗게 한다면 $\Rightarrow \neg P$: (그것은) 사람(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39) 고전 논리학에서 하나의 논리적 명제가 참임을 가정할 때, 그 명제의 대우 명제 또한 참이라고 증명하는 논리학적 증명을 대우 증명이라고 하며, 이는 명제 간 관계를 통해 증명하는 간접 증명이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시도한 논증은 $P \rightarrow Q$ 라는 명제가 참임을 가정하고 그 대우 명제인 $\neg Q \rightarrow \neg P$ 역시 참임을 가정하기에 이 명제 자체의 참과 거짓을 파악하는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마가복음 저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 구절에 나타난 논리적 명제와 불분명한 관계인 암시된 대우 명제 역시 마가복음 저자의 입장에서 진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막 7:20의 명제가 참(true)이라면, 이 명제의 논리적 대립쌍인 대우 명제, 곧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다는 명제 역시 논리적 참이다.

40) 고전 논리학에서 한 쌍의 명제가 참과 대우라면, 이 둘은 항상 논리적 동치인데, 곧 명제와 대우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7:20의 명제가 참일 경우 그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는 논리학적 추론으로 도출한 마가복음 7:20의 대우 명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정결법에 대한 요한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으며, 또한 마가복음의 정결관과도 일맥상통함을 발견했다. 논자는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고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본 연구의 각주 42-44를 보라.

이 대우 명제를 다시 서술하면, 결국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외부에서 있는 외적인 요인이나 힘이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이 외적 요인(힘)은 부정결을 없애고 정결의 힘을 전파해 부정함의 근원을 파하고 깨끗함을 가져오는 예수(와 그의 권능에 따른 사역)이다. 톰 홀멘(Tom Holmén)은 이런 예수로 인해 변화된 예전적 부정결에 대한 방식은 예수의 정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든다고 제안한다. 위 대우 증명과 유사하게 홀멘은 예수가 유대교 정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인정했으며,⁴¹⁾ 오히려 예수의 전략은 부정을 깨끗케 하는 거룩을 역으로 전파하는 것이라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마가복음 안에 내재 된 정결관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⁴²⁾ 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면, 요한복음 안에 암시적으로 나타난 정결에 대한 인식을 읽는데 상당한 변화를 수반한다. 곧 요한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마가의 정결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³⁾ 이는 최근 제기된 폐쇄적 요한공동체

41) T. Holmén, “Jesus And The Purity Paradigm,” *Handbook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T. Holmén and S. E. Porter, eds. (Leiden: Brill, 2011), 2743-44. cf. 세실리아 바센도 공관복음 안에서 예수의 유대적 정결법에 대한 긍정을 지지한다. 예수는 예수가 정결법을 어겼다는 직접적 고발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가 이런 정결 의식을 받아들였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정확히 분석했다 (e. g. 막 1:40-5. 마 23:25-6, 27). C. Wassen, “The Jewishness of Jesus and Ritual Purity,” *SIDA* 27 (2016), 31.

42)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는 다음을 보라. U. Schnelle, “Johannes und die Synopticker”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8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577-81; M. Hengel, *The Johannine Question* (London: SCM, 1989), 75; R. Bauckham, “John for Readers of Mark,” *The Gospels for All Christians*, R. Bauckham,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7-71 등. 요한복음의 마가복음 개작에 대한 최근 학자들의 연구의 집약은 E.-M. Becker, H. K. Bond and C. H. Williams, eds., *John’s Transformation of Mark* (London: T&T Clark, 2021)를 보라.

43) 프라이는 요한이 마가를 알았을 가능성을 다음의 세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1) 요 14:31과 막 14:42; 2) 요 12:27-28과 막 14:34-35, 41; 3) 요 18:1과 막 14:34-36. J. Frey, 이형일 역, 『요한복음의 신학과 역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123-26. 프라이는 요한복음 저자가 이런 동떨어진 세 문맥에서 마가복음 갯새마네 기사의 모티프를 수용하고 자신의 통찰에 따라 이를 수정했기에 요한이 마가복음의 예수에 기도(를 비롯한 기존 예수 전승)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의 존재 가능성에 재고와 더불어 공관복음 전승과 보다 넓은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최근 학계의 제안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논증할 수 있는 명제이다.⁴⁴⁾ 다시 말해 요한복음 저자는 공관복음 안에 나타난 정결법에 대한 의식을 보다 신학화를 거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런 개념이 표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⁵⁾

따라서, 공관복음과의 유사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유대교에 근거한 정결법에 대한 인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서 토마스의 의식적 예식으로서 세족에 관한 문헌 증거들의 분석을 살폈을 때 나타난 장소, 시간, 의식에 대한 정결법적 인식을 당시의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예수가 공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의 독특성은, 이런 의식법에 대한 인식을 공관복음처럼 구체적이지 않으나 한 차원 높은 신학화로 표현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유대교와 그레코-로만 세계의 정결관에 기초한 세 가지 세부 요소들(장소, 내면적 정결, 시간)을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 적용하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은 장소에 부합하는 정결을 포함한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분명 예수가 성전 된 자기 육체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부활사건과 연결해 제시한다 (cf. 요한복

44) 요한 공동체에 대한 재고에 대한 최근 학계 연구사에 대한 정리는 김주헌, “공관전승과 요한전승의 연결 가능성 재고”를 참고하라.

45) 드살바는 의식법과 도덕법의 영역을 나누고, 의식법을 초월하는 윤리를 내세워 그 영향력을 축소한 것이 기독교가 혁신적으로 이뤄낸 협상으로 평가한다. De Silva, 『문화의 키워드로 읽는 신약 성경』, 366. 그러나 예수가 정결법을 초월한 것이 아닌 완성을 지향했다는 유대교 안의 예수(Jesus within Judaism)를 주창하는 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Thiessen,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와 P. Fredriksen, *From Jesus to Christ: The Origins of the New Testament Images of Jesus*, 2nd ed., (New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등을 참고하라 (cf. E. P. Sanders, *Jesus and Judaism* (Minnea Polis: Fortress, 1985); B.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New York: Crown Publishing, 2011 등).

음 2:21,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곧 예수 몸의 새롭게 대체된 성전으로 인식한 성전 관념이 요한복음의 예수에게 존재했으며, 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인식을 통해 세족식은 예수가 성전 된 자기 몸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의 신학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위는 ‘성전 된 자기의 몸’으로 제자들이 나아오기 전,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구현화 한 예수, 곧 거룩의 공간이 제자들에게 본래는 제자들에게 속한 정결의 의무를 행해주려 다가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의 개념과 정결의 주체는 뒤바뀌었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소개한 정결 의식의 분석과 일치한다. 곧, 거룩한 장소에 나아오기 전에 부정의 요소를 몸에서 제거한다는 인식에 상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8의 예수의 말 대로 예수가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다는 것은 예수와 자들의 정결례를 통한 내면적 일치를 가리키는 차원도 있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예표 되는 예수의 몸을 맞이하기 위한 외면적 정결을 상징하는 입례적 예전의 차원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케리(A. R. Kerr) 역시 13장의 세족식을 예수의 성전된 몸과 연결 시켜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씻음과 예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음에 참여하는 두 가지 이해를 하나로 합치는 의식이라 설명한다.⁴⁶⁾ 케리의 논증에 따르면, 아버지의 집은 예수 자신의 몸이므로 (cf. 요 14:2; 요 2:21), 그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가 예비할 처소가 새로운 성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세족식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동시에, 새 성전으로 세워질 예수의 몸이 통과해야 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정결례 관습은 보통 여성노예나 아이들이 담당했고, 당시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하는 의무는 없었기에⁴⁷⁾ 예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46) A. R. Kerr, *The Temple of Jesus' Body: The Temple Theme in the Gospel of Joh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290-92.

47) B. Ktting, "Fuwaschung," *Reallexikon für Antike und Christentum* 8, E. Dassmann,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이 세족을 성전에 들어가는 정결례의 하나로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곧,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요한복음에서 거룩한 성소이며 예배의 장소로서 직접적인 묘사가 없다는 것이 난점이다. 그러나 요한적 신학의 틀을 고려하여, 성전과 유월절을 말하는 요한님의 의도가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믿음의 대상, 곧 예수님을 제시한다고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⁴⁸⁾ 만약 쿤란 공동체를 비롯한 당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제도에 대한 비판을 견지했다면, 그들의 바람은 성결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에 따라 행해지는 성전 제사,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었을 것이다.⁴⁹⁾ 그리고 요한 역시 이런 소망의 연장선에서 복음서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초월성과 세족식의 연결을 살펴봐야 한다. 요 2:21에 암시된 요한님의 수신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조우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요한적인 상징 언어는 성전 중심의 믿음에서 기독교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요한님의 수신들에게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위치한 예수님이 성전 된 자신의 몸이 성전을 대체했다는 믿음이 발생했다면, 그의 몸의 성전 됨의 상징성을 깨달은 요한 기자가 묘사한 세족식은 사람이 장소를 위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장소가 사람을 깨끗케 한다는 발상의 역전을

(ed.) (Stuttgart: Anton Hiersemann, 1972), 761-762.

48) 성전파괴와 이를 대체하는 새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요저작 동기임을 밝힌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A. Köstenberger, 『요한신학』,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cf. 정용한, “Jesus’ Raising the Temple in John 2:13-22: Johannine High Christology,” 『장신논단』 54(4) (2022), 7-32; 권혜생, “예수의 세족(요 13:1-17)에 나타난 성전과 가족으로서의 예수 공동체 모습,” 『교회와 문화』 32 (2014), 44-68, “성전신학의 관점으로 본 요한복음의 선교 사상,” 『신약연구』 14(4) (2015), 458-82, “요한복음 20:19-23에 나타난 예수의 성전 건축과 메시아 직분,” 『신약연구』 12(2) (2013), 214-39 등.

49) P. M. Hoskins, *Jesus as the Fulfillment of the Temple in the Gospel of John* (Eugene: Wipf and Stock, 2007), 95.

50) 정용한, “Jesus’ Raising the Temple in John 2:13-22,” 24-25.

담고 있다. 이는 예수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그의 백성에게 오셨음을 전제한다. 이에 근거해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 역할은 예수에게 전이됐다는 성전 대체 신학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족식은 또한 예수가 제자들을 씻김으로 성전 된 자신의 몸을 통해 드릴 수 있는 (부활로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로의 참여적 차원으로 제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화를 감안하면, 정결 의식의 장소적 측면에서 - 성전으로의 준비와 참여라는 두 차원을 통합하는 의식으로 - 세족식을 보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은 내면적(도덕적) 정결을 나타낸다. 이승문이 지적했듯이, 13장의 세족식은 요한의 전승을 알았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배신의 문제와 이로 인해 생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계승된 의식이었을 수 있다.⁵¹⁾ 요한 공동체를 상정한 그의 가정은 논외로 하고, 이승문이 이 세족식 담화를 알았던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생긴 믿음에 대한 배신, 동료 신자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온당해 보인다. 이 세족 전승의 일차 수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에 대한 배신(불신)은 성전 된 그의 몸을 경배하고, 거룩한 성체로 주어진 그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을 야기하는 요소였을 것이다. 인접한 내러티브에서도 가룟 유다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배신이 세족식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e.g. 요 13:2, 6, 11, 26-7, 30). 곧 세족식에서 예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 예수를 팔려는 유다와 세족식에서 선택을 받고 '서로 사랑의 윤리'에 대한 강화를 듣는 제자들의 대비는 유다로 상징되는 불신이 세족식의 당사자들의 내면에서도 씻겨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원론과 목적 진술(요 20:3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 20:31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 수신인들이 기독교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목적 진술과 빛, 생명, 진리, 위, 믿음 등의 항목에

51) 이승문, “요한복음서의 세족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과 사회학적 재해석,” 945-49.

대해 어둠, 죽음, 무지, 아래, 불신 등의 대치 항목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요한복음의 이원론을 함께 감안하면⁵²⁾, 요한복음 안에서 최고로 숭앙되는 가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따라서 요한의 정결법적 세족에서 이런 믿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유다가 드러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불신은 씻어 내야할 내면적 부정으로 치환된 것이다.

사실 이런 내면적 부정에서 도덕적 차원의 부정 개념은 제 2 성전기 유대교의 사상적 발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블리드스타인(M. Blidstein)은 제 2 성전기의 부정관념을 분석하며, 부정에 대한 인식이 다음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점차 강화됐음을 말한다. 첫째는 점차 더 많은 장소, 물건, 국가 등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부정에 취약하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부정의 근원을 오염시키는 힘 역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⁵³⁾ 이는 결국 사제가 아닌 일반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 때문에 일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게끔 했다.⁵⁴⁾ 이런 배경 위에, 클라완스(J. Klawans)는 쿰란문서에서 제의적 부정결과 도덕적 부정결의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1QpHab 8장의 열 번째 줄을 근거로, 1QpHab의 저자가 오만함에서 비롯된 탐욕스러운 행동을 가증

52) 요한복음의 이원론에 대해서는 R. Bauckham, "Dualisms," *Gospel of Glory: Major Themes in Johannine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S. C. Barton,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R. Bauckham and C. Mosser, eds. (Grand Rapids: Eerdmans, 2007) 3-18; M. Volf,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MT* 21(2) (2005), 189-217; J. Frey, "Recent Perspectives on Johannine Dualism And Its Background," *Text, Thought, and Practice in Qumran and Early Christianity*, R. Clements and D. R. Schwartz, eds. (Leiden: Brill, 2009), "Dualism and the Word in the Gospel and the Letters of John," *The Oxford Handbook of Johannine Studies*, J. M. Lieu and M. C. de Boe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등을 참조하라.

53) M. Blidstein, *Purity, Community, and Ritual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43.

54) Blidstein, *Purity, Community, and Ritual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43.

스러운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다. 다시 말해, 1QpHab의 저자는 오만함을 우리가 도덕적 불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천으로 간주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폐서 하박국 8장과 12장에 탐욕과 가증한 행위가 병치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된다고 클라완스는 지적했다.⁵⁵⁾ 이에 이어지는 사례로 1QpHab 12장의 사악한 제사장은 도덕적으로 불순한(가증한 행위)를 함으로 성소를 더럽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⁶⁾ 이런 관념의 연장선의 또 다른 독특한 예시는 4QMMT이다. 클라완스에 따르면, 이 문서는 제의적 순결에 관한 여러 종파의 종교, 제의법들을 언급하면서도 각 종파적 특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제의의 부정결과 도덕적 부정결을 하나의 부정함의 관념으로 통합했다.⁵⁷⁾

결과적으로, 히브리 성서에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등장하는 두 관념인 제의적 불결함과 도덕적 불결함이라는 개념들이 쿰란에서는 완전히 서로 얹히고 통합된 것이다.⁵⁸⁾ 따라서 클라완스는 종파적 기원을 가진 것이 분명한 문서인 1QS, 1QM, 1QH에서도 우리가 제의적 불결과, 도덕적 불결이 단일한 부정함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됐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⁵⁹⁾

그렇다면 이렇게 제의적 부정결과 도덕적 부정결이 점차 일원화되는 제2 성전기 유대교의 정결 관념이 요한복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간 학계에는 쿰란 공동체와 요한복음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요한이 진공 상태보다는 유대적 배경에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했다는 데는 합의가 있었다.⁶⁰⁾ 이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55) J.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0.

56)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71.

57)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75.

58)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88.

59)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90.

60) 다음 자료도 참조하라. M. L. Coloe and T. Thatcher, eds., *John Qumran and the Dead Sea Scrolls: Sixty Years of Discovery and Debat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E. W. Mburu, *Qumran and the Origins of Johannine Language and Symbolism* (London: Bloomsbury, 2010).

에도 도덕적(내면적) 부정과 제의적 부정결을 연결하는 몇몇 예시를 살펴볼 수 있다. 요한복음 8:21, 24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위로부터 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음이 유대인들의 죄임을 서술한다. 유사하게 요한복음 15:24는 예수가 행한 표적 가운데 드러난 아버지와 아들(예수)을 미워함이 유대인들의 죄임을 진술한다. 다시말해, 당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제의적 죄로 보는 사안(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요한은 예수에 대한 불신(내면의 부정결)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족식 단락이 명시하는 내면의 부정은 예수에 대한 불신이며, 유다로 상징되는 예수의 존재에 대한 배반이다. 그러나 세족식에는 이런 내면적 부정결을 씻는 역전이 또한 나타나는데, 세족식을 통해 부정이 씻어진 자리에는 예수가 모범을 보여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이 채워진다 (cf. 요 13: 15, 34-35). 세족식에 제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 지식에 반응하는 인물이자 유다의 대립항적 인물로 제시된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의 선한 목자 담론을 계승하는 양을 사랑하는 역할을 받은 인물이 된다 (요 21장).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예수가 이처럼 관계를 통해 보여준 지식을 수용하기 때문인데,⁶¹⁾ 세족식은 유다의 불신이라는 부정을 씻어내고 이 지식이 들어가게 준비하는 전조적 예식이다. 따라서 요한의 신학화 된 언어를 고려해도 세족식 이면에 자리한 정결법적 측면에서 씻어낼 내면의 부정은 예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며, 세족식은 이를 상호적, 관계적 지식이라는 정결함으로 대체하는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은 시간적 정결 요소를 포함한다. 요한복음 13:1에서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전, 예수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갈 ‘그 시간(ἡ ὥρα)’이 임박했다고 명시된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감을 암시하는 요한적 시간관

61) 세족식에서 상호적이고 관계적 지식(reciprocal and relational knowledge)의 해석학적 중요성을 다룬 연구는 A. J. Hochstedler, “Knowledge as an Interpretive Key For Footwashing in John 13, 1-20,” *MF* 116 (2016), 399-421를 보라.

념이 내재된 표현이다.⁶²⁾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고난받는 종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해 묘사한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요한복음 속 유월절의 의미를 살핀다면, 대속적 희생제물과 유월절 어린양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결합해 나타내는 것이 요한의 의도임은 분명하다. 즉 13:1의 ‘그 시간’은 유월절 희생 제사의 속죄적 의미를 완성하고 실현하는 특별한 시간대를 가리킨다.

또한 예수의 절기를 구별하는 시간관념에 대한 의식은 13장보다 앞선 단락의 안식일 논쟁에서도 살필 수 있다. 여기서 예수는 법적 논증에 의거해 자신이 안식일에 행한 행동을 옹호한다(요 7:23).⁶³⁾ 이는 안식일이 구별된 특별한 시간임을 예수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만약 요한이 예수가 이런 절기에 대한 구분된 시간관념을 가졌다고 표현한 것이라면, ‘그 시간’에 맞춰 세족식을 준비한 예수 역시 시간에 대해 의도적으로 구분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젠은 암시적인 증거이지만,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다른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물에 잠기는 일반 의식(the general paschal immersion)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⁶⁴⁾ 그러므로 세족식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유월절 잠김 의식 자체이거나 이를 확장한 것이며, 여기에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윤리적 감화를 더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족식의 시간적 정결 관념 배후에는 유월절이 있다. 이 유월절은 시기상의 절기 배경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영화를 위해 제자들을 물에 잠김으로 준비하는 ‘구분된 시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을 닮아,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의 시간인 십자가 위의

62) 세고비아는 ‘이 때’, 곧 세족으로 시작되는 때가 예수의 영화(glorification)가 드러나는 시간은 제자들이 성령을 부여받는 특별한 시간을 상징화한다고 해석한다. Segovia, “The Footwashing in the Johannine Tradition,” 43.

63) Thiessen,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343-46.

64) Kazen, *Jesus and Purity Halakhah*, 255.

유월절을 대비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의 윤리를 실천하게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은 씻김을 통해 예수와 상관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요 13:8). 다시 말해 세족식의 배경인 ‘그 시간’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정결해지도록 구분된 시간이다. 따라서 세족식 이면에 있는 유월절적 시간 개념은 제자들의 정화가 이뤄지는 때이며, 이는 불신으로 더럽혀진 유다의 시간인 밤과 대비되는 시간이다 (cf. 요 13:30).

따라서 리(D. Lee)의 진술대로, 요한복음 속 은유적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일어나는 상징적 병합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도록 동화되는 요한적 예수의 육체 자체가 (옛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가리킨) 유월절의 진정한 실체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⁶⁵⁾ 이런 유월절적 상징의 확장을 통해, 예수는 유월절 절기와 그 숭배의 실현이자, 고난받는 종이며 죽음을 이긴 승자를 대표하게 된다.⁶⁶⁾ 이런 상징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요한의 시간에 대한 특별하고 구분된 관념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신학 속에서 세족식의 시간적 정결은 안식일과 같이 ‘구별된 시간’인 유월절적 시간 개념을 포괄하며, 이 시간은 온전한 정결례가 행해지는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나사로를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압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⁶⁷⁾ 예수 자신의 죽음 이후 불신과 배반이라는 부정에 빠질 제자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끄는 시간이다 (요 13:19, 3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실은 정결례란 정결례 당사자가 거룩한 장소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의식적 깨끗함을 갖추고 유지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서 발견하는 특징들에도 부합하는 설명이다. 곧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힘, 혹은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정결에 대한 인식이 이 모든

65) D. Lee, "Paschal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A Narrative and Symbolic Reading," *Pacifica* 24(1) (2011), 27-28.

66) Lee, "Paschal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28.

67) Thiessen,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246.

정결례의 기저에 있었다. 요한은 세족식에서 세 가지 차원의 유대 정결법적인 요소들(장소, 내면적 청결, 시간)을 자신의 신학적 언어 표현과 결합하여 윤리적 차원에까지 그 의미를 승화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의 정결 관념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다음과 같은 독특한 요한적인 요소들이 있다:

- 1) 장소: 성전 된 예수의 육체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이 요구되나, 그 정결을 수행하는 주체는 역설적으로 장소 자체인 예수이다. 동시에 예수가 전하는 정결은 단순한 준비가 아닌 예수의 고난과 부활로 동참하게 권면한다.
- 2) 내면적 청결: 제의적 부정과 내면의 부정 관념을 통합해 요한은 예수에 대한 불신을 부정의 힘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내면의 부정을 씻어낸 자리를 채울 내면의 청결은 예수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적 지식과 여기에 기인한 사랑으로 이뤄진다.
- 3) 시간: 요한은 세족식의 배경을 유월절적 시간으로 명시한다. 이는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예수에 공명하여 발을 씻김 받은 제자들 또한 예수의 희생에 동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든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의 희생의 의미를 나중이라도 깨닫는 제자들은 예수의 믿음과 사랑의 본을 따르는 참된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종합하자면, 지금까지 접근들이 세족식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만을 주목했다면, 본 연구가 제공한 시각은 세족식 이면의 유대 정결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게 하여, 한 차원 깊은 세족식의 의미 고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요한기사가 가진 신학화의 틀을 고려하되, 세족식을 극단적으로 신학화 하거나 상징적인 장치로만 보는 견해 혹은 성례전의 하나로만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특히 요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예수가 유대교 정결의식을 완성하고 준수하기 위해 온 것이지

폐기 혹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 세족식에서 유대 정결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레코-로만 배경과 유대교 배경 문헌들에서 발견한 정결법적 의미를 개관했으며, 이 특징들이 어떻게 요한복음의 세족식에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요한복음의 세족식이 어떻게 정결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요한의 세족식은 장소 (성전 된 예수 몸), 내면의 청결(예수에 대한 불신과 배신을 씻고, 믿음으로 정화), 시간 (세족식의 유월절적으로 구별된 시간대)에서 유대 정결법과 상응하는 특징들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 요소들은 요한의 기독교적 신화화를 거쳐 암시적인 의미층 속에 드러났지만, 이것들이 당대 유대교 전통에 있던 요한이 자신의 일상에서 접한 정결 관념을 예수 중심으로 새롭게 서술한 문화적 배경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슈넬레가 지적했듯 요한의 세족식은 종이 감당하는 비천한 임무인 세족을 제자들에게 행하여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임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해서 드러내었다.⁶⁸⁾ 세족식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사이기도 했지만,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으며 (요 13:1), 그 사랑을 서로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예시였다(ὑπόδειγμα, 요 13:15).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대비되어,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예시인 세족은 행동으로 구현된 사랑을 통해 어떻게 상호 간 섬김이 이뤄지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폈듯,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을 상징화한 예전의 행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의 정결적 의무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씻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종이 보여야 할 섬김의 의무를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해주는 역전이다. 세족식의 핵심인 이런 정결관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연결을 고려할 때, 마가복음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정결을 전파하는 역전과 상응하는 요한적 재진술이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표현된

68) U. Schnelle, *The Theology of New Testament*, M. Eugene Boring, tr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728.

요한의 정결관 기저에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본 연구는 유효한 기준을 발견하고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세족식에서 유대 정결법적 차원을 고려한 시각이 앞으로의 다른 탐구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주제어>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정결법, 유대교 의식, 유대교 안의 예수

<Keywords>

John 13, Footwashing, Purity laws, Jewish ritual, Jesus within Judaism

* 접수일 2023년 3월 2일, 수정일 2023년 3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5일

참고문헌

- 권해생, “요한복음 20:19-23에 나타난 예수 of 성전 건축과 메시아 직분,” 「신약연구」 12(2) (2013), 214-39.
- _____, “예수의 세족(요 13:1-17)에 나타난 성전과 가족으로서의 예수 공동체 모습,” 「교회와 문화」 32 (2014), 44-68,
- _____, “성전신학의 관점으로 본 요한복음의 선교 사상,” 「신약연구」 14(4) (2015), 458-82,
- 김문현, “요한복음 13:1-38 내러티브 읽기: 베드로의 인물성격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1(2) (2014), 173-212.
- 김주현, “공관전승과 요한전승의 연결 가능성 재고: 요한 특수 공동체 가설에 대한 재검증에 근거해,” 「신약연구」 21(3) (2022), 352-384.
- 송승인, *Water as an Image of the Spirit in the Johannine Literature*, SBL 171, New York: Peter Lang, 2019.
- 이승문, “요한복음서의 세족에 대한 주요 연구 동향과 사회학적 재해석,” 「신약논단」 20(4) (2013), 923-958.
- 임미영, “신약 시대 구약의 정결법 실천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 「Canon&Culture」 13(2) (2019), 249-279.
- 정용환, “Jesus' Raising the Temple in John 2:13-22: Johannine High Christology,” 「장신논단」 54(4) (2022), 7-32.
- 황훈식, “예수의 세족에 대한 신학적, 예식적 발달역사 - 밀라노 암브로시우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9 (2020), 91-117.
- Cullman, O., 『원시기독교 예배』, 이선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De Silva, D. A., 『문화의 키워드로 읽는 신약 성경』, 김세현 역, 새물결플러스, 2019.
- Köstenberger, A., 『요한신학』,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 Thiessen, M.,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이형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Abramowski, L., “Die Geschichte von der Fuwaschung (Joh 13),”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102(2) (2005), 176-203.

- Bauckham, R., *Gospel of Glory: Major Themes in Johannine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 _____, (ed.), *The Gospels for All Chris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8.
- Bauckham, R. and C. Mosser, eds., *The Gospel of John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7.
- Becker, E.-M., H. K. Bond, and C. H. Williams, eds., *John's Transformation of Mark*, London: T&T Clark, 2021.
- Bieringer, R., (ed.),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Literature*, Leiden: Brill, 2010.
- Blidstein, M., *Purity, Community, and Ritual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Clements, R. and D. R. Schwartz, eds., *Text, Thought, and Practice in Qumran and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2009.
- Coloe, M. L., T. Thatcher, eds., *John Qumran and the Dead Sea Scrolls: Sixty Years of Discovery and Debat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 Dassmann, E., (ed.), *Reallexikon für Antike und Christentum* 8, Stuttgart: Anton Hiersemann, 1972.
-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 Fredriksen, P., *From Jesus to Christ: The Origins of the New Testament Images of Jesus*, 2nd ed., New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Frey, J., *Recent Perspectives On Johannine Dualism And Its Background*, Leiden: Brill, 2009.
- _____, 이형일 역, 『요한복음의 신학과 역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Hochstedler, A. J., "Knowledge as an Interpretive Key For Footwashing in John 13, 1-20," *MF* 116 (2016), 399-421.
- Holmén, T. and S. E. Porter,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Leiden: Brill, 2011.

- Hoskins, P. M. *Jesus as the Fulfillment of the Temple in the Gospel of John*, Eugene: Wipf and Stock, 2007.
- Kazen, T., *Jesus and Purity Halakhah: Was Jesus Indifferent to Impurity?*, Stockholm: Almqvist & Wiksell, 2002.
- Keener, C. S., *The Spirit in the Gospels and Acts: Divine Purity and Power*, Peabody: Hendrickson, 1997.
- Kerr, A. R., *The Temple of Jesus' Body: The Temple Theme in the Gospel of Joh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Klawans, J.,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Lee, D., "Paschal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A Narrative and Symbolic Reading," *Pacifica* 24(1) (2011), 13-28.
- Lennon, J. J., *Pollution and Religion in Ancient Ro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Lieu, J. M. and M. C. de Bo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Johannin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Lohse, W., "Die Fusswaschung (Joh 13: 1-20): Eine Geschichte ihrer Deutung", Dr. theol. Dissertation,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zu Erlangen-Nürnberg, 1967.
- Mathew, B., *The Johannine Footwashing as the Sign of Perfect Love: An Exegetical Study of John 13:1-20*, Tübingen: Mohr Siebeck, 2018.
- Mburu, E. W., *Qumran and the Origins of Johannine Language and Symbolism*, London: Bloomsbury, 2010.
- Petrovic, A. and I. Petrovic, eds., *Inner Purity and Pollution in Greek Religion: Volume I, Early Greek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Pitre, B.,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New York: Crown Publishing, 2011.
- Richter, G., *Die Fusswaschung im Johannesevangelium*,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1967.

- Robinson, J. A. T., "The Significance of the Footwashing," Edited by W. C. van Unnik, *Neotestamentica et Patristica*, NovTSup 6, Leiden: Brill, 1962.
- Sanders, E. P., *Jesus and Judaism*, Mineapolis: Fortress, 1985.
- Schnelle, U., *The Theology of New Testament*, M. Translated by Eugene B.,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_____,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8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 Segovia, F. F. "John 13,1-21, The Footwashing in the Johannine Tradition," *ZNW* 73 (1982), 31-51.
- Thomas, J. C., "*Foot washing in John 13 and Johannine communi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0.
- Tripp, D., "Meaning of the Foot-Washing: John 13 and Oxyrhynchus Papyrus 840," *The Expository Times* 103(8) (1992), 237-239.
- Volf, M., "Johannine Dualism and Contemporary Pluralism," *Modern Theology* 21 (2005), 189-217.
- Wassen, C., "Jesus' Table Fellowship with "Toll Collectors and Sinners": Questioning the Alleged Purity Implications," *JSHJ* 14(2) (2016), 137-157.
- _____, "The Jewishness of Jesus and Ritual Purity,"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27 (2016), 11-36.
- White, L. M., and O. L. Yarbrough, eds., *The Social World of the First Christians. Essays in Honor of Wayne A. Meeks*, Minneapolis: Fortress, 1995.

<초록>

요한복음 세족식의 유대 정결법적 의미

요한복음 13장 세족 담화 속 정결례적 요소 분석

김주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요한 공동체 가설에 기초한 상징화된 해석, 혹 성례전적 해석으로 양분됐다. 그러나 지금 두 해석이 직면한 공통적 문제는 1) 지나치게 본문 내적의 심상 분석에만 치중하는 점과; 2) 요한 공동체의 역사적 존재가 의문시되어 이에 기반한 해석은 역사적 개연성이 약하다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약학 논의에서는 예수가 유대 정결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준수하고 완수하려고 왔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의 학계는 예수의 유대적 정체성이 예수 전승 안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드러나는지 활발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학계의 변화를 세족 본문에 적용하여 그간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유대 정결법적 요소들이 요한복음의 세족식에 존재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로마 배경 문헌과 제2 성전기 배경 문헌을 통한 당대의 정결 관념 도출을 먼저 시도할 것이다. 이에 기반해 본 연구는 요한 세족식의 유대 정결법적 요소가 발견되는 영역을 1) 장소, 2) 내면(도덕)의 청결, 3) 시간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진행한 조사에 따라 요한복음의 세족식 이면에 존재하는 세 요소들이 요한복음 저자가 유대교의 정결 관념을 자신만의 신학화를 거쳐 변주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요한복음이 유대교의 정결 요소에 기반한 변화된 정결 관념의 표현을 통해 기독교 중심적인 새로운 정결 관념을 새롭게 제시했음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Meaning of Johannine Footwashing
in the light of Jewish purification Law :
Analysis of the Purification factors
in the Footwashing pericope in John 13**

Dr. Juheon Kim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Previous research on footwashing in John 13 has been divided into either symbolic interpretation or sacramental interpretation, both based on the Johannine community hypothesis. However, these two interpretations share common problems: 1) an excessive focus on internal symbolism analysis of the text, and 2) the historical existence of the Johannine community is questionable, making these interpretations weak due to the result of the question of historical credibility. Recently, in New Testament studies, a view has emerged that Jesus did not ignore Jewish purity laws but rather came to uphold and fulfil them. Through this view, attempt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Jewish identity in the Jesus tradition has become more active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This study applies this academic shift to the footwashing pericope and argues that Jewish purity element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are present in the footwashing in John's Gospel. In doing so, the study first attempts to derive the contemporary concept of purity from Greco-Roman and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Based on this, the study identifies three areas in which Jewish purity elements are present in the foot-washing ceremony in John's Gospel: 1) place, 2) inner(moral) purity, and 3) time. The

investigation i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three elements present in the footwashing in John's Gospel reflect the author's uniqu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Jewish purity concep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John's Gospel presents a new concept of purity which is Christ-centered, through transforming the expression of purity from Jewish purity ideas.

